



# 생생리포트

---

## 일자리, 청년이 묻고 답하다

- I. 일자리 현장을 만들다
- II. 일자리 현장을 바꾸다
- III. 일자리 현장을 이어가다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고태경 kotaekyung@seoul.go.kr

# 일자리, 청년이 묻고 답하다

## I. 일자리 현장을 만들다

### 1. 우리의 자리를 고민하다

학교에 처음으로 등교하던 날, 기억나시나요? 공책에도 연필에도 내 이름이 표시되어 있고, 선생님의 교탁 앞에는 내 이름이 적힌 자리배치도가 있었죠. 내 자리라고 부르고 누릴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내 자리를 만드는 것이 치열한 경쟁에서 이겨야 하고, 고단함을 견뎌야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현실을 담보로 미래를 위해 도전하는 과정이 이어지고, 거울 속의 나를 보며 힘내라고 외치는 목소리가 매일 작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부족함 없는 스펙을 쌓으면서 동시에 봉사활동과 아르바이트로 경험도 만들어야 하는 청년들에겐, 어느 순간 대학가의 낭만이라는 것은 전설처럼 공감할 수 없는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 2. 현장으로 걸어 들어가다

서울의 청년 3명 중 1명은 실질적 실업상태에 있습니다. 대학마다 취업률을 높이려고 노력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말로 버티내기엔 매번 젊음과 열정을 취업이라는 결과로 평가당하는 기분이 무겁기만 합니다.

일자리를 얻기 어려운 청년들이 꿈꾸는 것을 포기하고, 한강의 기적을 이룬 우리 베이비붐 세대들은 은퇴 후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더욱이 출산과 육아를 위해 일터를 떠난 여성들이 다시 일터로 복귀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려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일자리 문제가 세대와 성별을 막론하고 모든 시민에게 고통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서울 일자리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일자리야말로 먹고사는 문제의 출발점이자, 복지정책의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2015년 10월 7일부터 31일까지 총 99개의 현장에서 3,900여 명의 시민을 만났습니다. 매

일 12시간 이상 현장에서 ‘일자리대장정’이라는 이름으로 오직 한 가지, ‘일자리’만 고민했습니다.

‘일자리대장정’은 일자리의 숫자를 늘리는 것뿐 아니라 일자리의 질에도 주목했습니다. 일시적인 일자리 창출보다는 산업 활성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민간기업, 산업계, 노동계 등이 총출동해 함께 일자리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책상에서 만드는 정책이 아닌, 현장을 직접 보고 시민들과 소통하며 고민하는 시간이었으며, 일자리가 있는 현장을 찾아가 경청하고, 단 하나의 일자리라도 만들 수 있다면 언제 어느 곳이든 서울시가 찾아가겠다는 다짐을 실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림 1〉 일자리대장정 상징 이미지

## II. 일자리 현장을 바꾸다

### 1. 청년과 공감하고 연대하다

‘일자리대장정’의 모든 일정은 깨달음의 연속이었습니다. 열정, 패기, 도전...청년 전용에 가깝던 이 단어들에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대신 단군 이래 최고의 스펙을 자랑하는 청년 세대 사이에는 ‘N포 세대’, ‘문송합니다’에 이어 ‘헬조선’, ‘흙수저’ 같은 한숨과 자조, 체념이 퍼지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가파르게 올라 12%를 웃돌고, 체감 실업률은 30%에 육박하는 고용 절벽의 시대, 어려움을 견디고 더 노력하면 나아질 것이라는 응원마저 ‘희망 고문’이라고 느껴지는 현실에서 아르바이트 현장으로, 취업 준비장으로, 과감히 창업을 시도해 묵묵히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는 작업장으로, 서울 일자리대장정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출근의 기쁨, 일상의 행복, 노동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청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기업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어떤 지원이 건강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지 치열하게 고민했습니다. 일자리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데 필요한 권한과 재정은 제한적이지만, 손을 잡아주고 정직하게 대면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서울 일자리대장정 팀과 청년의 만남은 일자리에 대한 화려한 약속이나 거창한 계획 대신, 지금 여기 함께, 기회를 찾고 연결하고 만들어가는 연대의 발걸음이었습니다.

## 2. 청년의 도전이 현장을 바꾸다

실패와 두려움의 울타리가 되는 대학을 상상해보세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장 찬란한 도전의 시기에 스펙쌓기에 몰두해야만 하는 우리 젊은이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도전을 무모함으로 보지 않는 우리 사회 인식의 변화입니다.

푸드트럭 협동조합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한양대학교에는 교직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HYCOOP라는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학교가 실습의 현장으로 바뀐 것이죠. 조리학과 학생은 영양과 맛을 고려한 메뉴를 고민하고, 의상학과 학생은 유니폼을 디자인합니다. 경영학과 학생들은 수익성을 위한 전략을 고민하죠.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서울대학교 해동 아이디어 팩토리에서는 고가의 시제품을 무료로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아이디어를 현실화할 수 있는 다양한 장비를 무료로 활용해 시제품을 제작해볼 수 있습니다. 창업을 꿈꿀 수 있는 공간이죠.

캠퍼스 안에서 머물던 창업교육이 대학의 울타리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화여대52길, 이곳은 '이화 스타트업 52번가'로 불립니다. 대학과 지자체가 지원하는 청년 창업기업이 이곳에 입주해 창업 경력을 쌓고 있습니다.



〈그림 2〉 한양대학교 학생들이 운영하는 푸드트럭



〈그림 3〉 서울대학교 해동 아이디어 팩토리 회의실

최초, 최고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제품을 디자인하고, 몸담는 모든 이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넓혀가는 것만으로도 이미 경영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도전을 권할 수 있는 세

상,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말해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일자리대장정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변화이기도 합니다. 청년의 행복이 곧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믿습니다.

### Ⅲ. 일자리 현장을 이어나가다

#### 1. 도전의 기회를 넓히다

다양한 수공예품과 푸드트럭 장터, 흥겨운 거리공연을 한 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곳, 공연무대에서는 기타로 연주하는 버스킹 공연과 가족단위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는 곳이 바로 서울 밤도깨비 야시장입니다.

2015년 10월,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처음 문을 연 서울 밤도깨비 야시장은 2016년 6월 현재 청계광장, DDP 등 세 곳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올해 중 목동 운동장까지 총 4곳의 야시장을 운영할 계획인데요, 서울 밤도깨비 야시장은 찾는 이들에게는 빌딩 숲 속의 새로운 활력이자, 이곳을 만들어가는 이들에게는 미래를 위한 도전 기회의 장입니다.

젊은 나이에 친구들과 창업한 어엿한 최고경영자, 레스토랑 운영을 꿈꾸는 푸드트럭 대표 등 밤도깨비 야시장은 청년 스타트업 기업이나 공방, 상점을 운영하

는 이들에게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서울형 야시장’은 새로운 가능성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울 시민이 가장 사랑하는 대표적 명소의 매력 위에 독특한 테마를 엮고, 일자리로 이어지는 창업 인큐베이팅 시스템까지 접목시키려는 시도가 진행 중입니다. 말하자면 밤도깨비



〈그림 5〉 서울밤도깨비 야시장 @여의도한강공원



〈그림 4〉 서울 밤도깨비 야시장 @DDP 포스터

야시장은 상인과 고객, 문화를 잇는 새로운 장터 축제가 열리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시민은 생산자가 직접 판매하는 미래형 장터에서 ‘유일한’ 상품을 체험하고, 소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곳은 진화하는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시스템이 구축된 공간이기도 합니다.

## 2. 함께 자리를 만들다, 함께 일을 만들다

“줄탁동시(啍啄同時)라는 말이 있습니다.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기 위해서는 어미 닭이 밖에서 쪼고 병아리가 안에서 쪼며, 함께 서로 협력하는 힘이 있어야 마침내 알을 깨고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일자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부의 역량과 외부의 환경이 함께 할 때, 내부에서 깨고 나오려는 힘과 외부에서 깨주는 힘이 만났을 때, 비로소 창조적인 최선의 결과, 최고의 결과가 창출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 2015년 일자리대장정 출정사 중

의료기관에서 직접 꼽은 의료서비스 분야의 문제점과 과제에 대해 중학생부터 현직 의사까지 70명의 다양한 시민이 무박2일 동안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이를 구체화해 실제 시제품으로 만들어내는 ‘헬스케어 메이커톤’이나, 아이디어와 협업으로 복지, 환경, 문화관광, 건강, 교통 등 각 분야 서울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00명이 지성을 모으는 ‘해커톤’은 변화를 위해 모두가 힘을 모으는 좋은 예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을 보태고, 그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며 새로운 사업이 될 수 있는 기회에 관심을 더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2015년 10월 한 달 동안 진행되었던 일자리대장정은 2016년부터는 3월부터 11월까지 매달 마지막 주, 현장을 찾아가는 연중 캠페인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일자리가 있을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고, 현장에서 시민의 근심과 기업의 고충을 경청하는 운영방식은 그대로이지만, 고민과 걱정을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에 귀 기울이면서 조금씩 변화하고 발전한 현장은 조금씩 늘어가고 있습니다.

2015년 현장에서의 건의는 2016년에는 지켜진 약속이 되고 있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자그마한 것들뿐이라고요? 시도와 도전이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많은 변화와 도전이 이어질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대장정이 우리 모두에게 신나는 이야기의 시작이 되었으면 합니다. 청년이 신나는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일자리대장정이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신이 품고 있는 꿈에 한 걸음씩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더 많은 일자리를 나누고, 그래서 함께 일하는 서울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일자리대장정 버스를 기다리신다구요? 그럼 서울일자리대장정 홈페이지에 글을 남겨주세요. 출발하겠습니다.



〈그림 6〉 헬스케어 메이커톤 현장



〈그림 7〉 어떤 현장이든 달려가는  
일자리대장정 버스